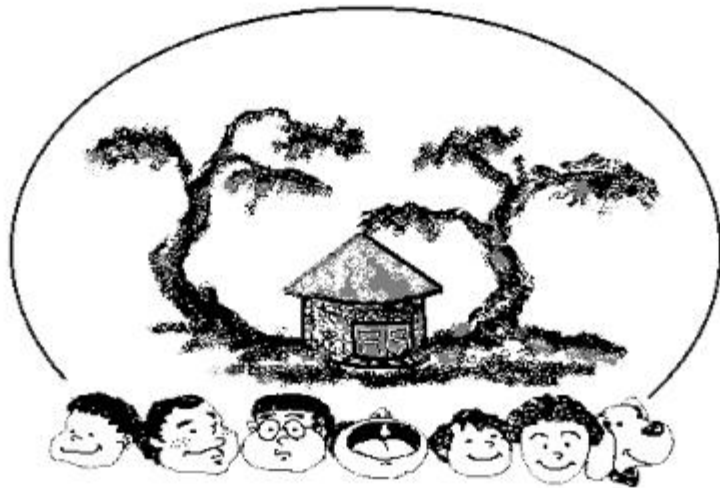


2003 제 5호

2003학년도

간디청소년학교 졸업논문집



간디청소년학교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
Tel:(043) 653-5792 Fax:(043) 653-5798

2003학년도

간디청소년학교 졸업논문집

간디청소년학교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선고1리 92-3
Tel:(043) 653-5792 Fax:(043) 653-5798

－ 차 례 －

-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 양희창 선생님(간디청소년학교장) 5

-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 손진근 선생님(중 3 담임) 7

<졸업 작품 및 논문>

1. 청소년기에 있어서 올바른 성공을 위한 목표 설정 연구

..... 김성기(지도교사 양희창) 11

2. 자연적 삶에 대한 연구 및 생태적 간디학교를 위한 제안

..... 신현우(지도교사 양희창) 23

3. 미타쿠예 오야신(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박기범(지도교사 김병삼) 36

4. 0에 관한 보고서 오창민(지도교사 태영철) 28

5. Wonderful Magic 노영규(지도교사 이임주) 64

6. 여고괴담의 특징 분석 김소은(지도교사 태영철) 79

7. 바람직한 축구 서포터즈 문화의 수용 김도현(지도교사 오피션) 95

8. 바비가 바꿔놓은 미의 기준과 그 영향	한수민(지도교사 김현숙)	113
9. 욕과 비속어, 은어 사용을 통해 본 간디인들의 언어생활	민한별(지도교사 윤혜상)	128
10. 포근함을 느낄 땐 테디베어와 함께	박하은(지도교사 오영란)	150
11. 동서양의 타악기 비교와 접목연구	김재화(지도교사 손진근)	165
12. 간디학교 자율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임 환(지도교사 김병삼)	184
13. 비주얼락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김성근(지도교사 태영철)	197
14. 내가 만드는, 우리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장인혜(지도교사 손진근)	207
15. 간디학교 내 집단 따돌림 실태 및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김도솔(지도교사 이임주)	216
16. 김진명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진실과 허구	이수연(지도교사 장희숙)	234
17.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	김진우(지도교사 오피선)	269
18. 내 종이 위의 간디학교	이 안(지도교사 김현숙)	269
19. 실화소설 간디학교 아이들	김수민(지도교사 장희숙)	269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양 희 창(간디청소년학교장)

애들아, 논문집이 나오니까 마음이 뿌듯하지? 뭔가를 향해 몰두하고 정성을 쏟을 만한 일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은 한 단계 나아지는 것 같아. 수고했다. 일생을 통해 생명을 걸만한 일을 해 본 사람과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며 살아온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란다.

가슴 뛰는 일을 찾아 나서기 위해 간디라는 통로를 지나왔다고 생각해 보렴, 이제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일을 만나야만 해, 그 동안 아무 것도 하는 것 없이 허송세월하며 고민만 늘었다고 탓하지 마. 그 또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몸부림이었으니까.

애들아, 세상이 어렵다고 모두 다 한숨을 쉬는데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걱정만 하면서 세상 따라가기 바빠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지.

역사의 수레바퀴를 타려고만 하는 사람과 힘들긴 해도 끌고 가는 사람 중 어떤 삶을 택하는가는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마당을 쓸면서 우주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만 바라보며 투덜거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너희들, 학교에서 바위처럼 살아가자고 지겹도록 노래를 불렀잖니? 근데 바위처럼 산다는 게 뭘까? 아마 그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바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세상 부지런히 살다가 한 번 생각나면 학교로 찾아 와라. 부탁인데 너희들이 멋진 모습일 때는 안 와도 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꼭 한번 우리들을 찾아주렴...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게.

천천히 마당을 쓸면서

빛바랜 너희들의 논문집을 들춰 보면서.....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이 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손진근(영원한 중3 담임)

‘일신우일신신’이라 했던가. 해가 갈수록 졸업 작품이 다양해지고 논문 완성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참 기쁘다. 선생 할 맛이 난다. 좋다.

2003학년도 졸업 작품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간디학교에 관련한 작품과 논문이 다수를 차지했다. 졸업 작품으로 만화창작집 ‘내 종이의의 간디학교’, 장편소설 ‘간디학교 아이들’, 다큐멘터리 영상물 ‘내가 생각하는 간디학교’와 논문으로는 ‘간디학교의 왕따 문제 연구’나 ‘간디학교 학생들의 언어 습관’, ‘간디학교 자율성 연구’이다. 또한 음악, 인형, 영화, 생태, 마술, 수학, 청소년 성공 연구, 소설연구, 졸업앨범 등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를 잘 반영하는 작품들이다. 특히 간디학교를 적나라하게 삶을 파헤친 ‘간디학교의 왕따 문제 연구’나 ‘간디학교 학생들의 언어 습관’, ‘간디학교 자율성 연구’ 등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며 소중한 자료로 길이 남을 것이다.

지금도 전산실을 지날 때면 중3들이 밤 새워 논문 작업을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노심초사, 작품 발표는 다가오고, 진도는 안 나가고, 인터넷은 나를 유혹하고, 논문지도 선생님의 압박은 계속되고……. 어~휴~!

주제는 무엇을 선정해야 할까? 주제는 도무지 잡히지 않고 고민만 무성하고, 주제는 잡았지만 어떻게 연구하고 조사를 할까? 아이 귀찮아. 연구하고 조사한 걸 어떻게 정리하여 서술할까? 논문 발표는 다가오는데 되는 것은 없고, 졸업은 해야겠고, 오늘도 밤을 새워야 하나. 이런! 밤을 새웠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고…….

“배움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가르침은 다만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널리 알리는 말이다. 조금은 이해가 되나 몸으로 느끼고 깨달기는 쉽지 않는 말이다. 우리 중 3들이 졸업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말에 대해 조금이라도 몸으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중학생으로서 정말 쉽지 않는 작업이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 자기가 정한 주제를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분명 세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발견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의 모습,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많은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황금 들녘 속에 꼭 찬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진리에 대한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졸업 작품 발표 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놀라운 성숙미를 보여준 중 3들.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과 머리가 자란다는 걸 깨닫게 해준 중 3들.

무지무지 고맙고 기특하다.

이 졸업 작품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분명 중 3들 삶 속의 밀거름이 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는 데 밀거름이 되고, 간디학교를 발전시키는 밀거름이 될 것이다.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남을 중 3들. 너희를 이 졸업 작품과 함께 ‘간디’라는 품속에서 늘 기억하마. 또한 졸업작품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중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2003학년도 간디청소년학교

「졸업논문 및 작품」

